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2종 공개

JCP 작품 스틸컷 채택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노나·굿 비즈니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에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8(Jeonju Cinema Project 이하 JCP)' 선정작 5편 중 <노나>(카밀라 호세 도노스)와 <굿 비즈니스>(이학준)의 스틸컷이 선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가 JCP 작품의 스틸컷을 공식 포스터 이미지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나>와 <굿 비즈니스>는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지만, 아픔과 위기는 공통된 주제를 갖는다. 두 작품에서 묻어나는 실험적인 색채는 18회에 이어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아픔을 겪고 있는 노년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포스터는 <노나>의 스틸컷으로 그녀의 삶을 레드컬러에 비유하여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또 다른 포스터는 탈북자를 소재로 한 <굿 비즈니스>의 스틸컷으로 감시원에게 발각된 주인공의 불안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포착하여 위기 상황을 부각시키고, 흑백대비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JCP의 또 다른 작품인 <태양이 항상 바다로 가는 것은 아니다>(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알벤드라스), <겨울밤>(장우진), <파도치는 땅



올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에 채택된 '노나'(왼쪽)·'굿 비즈니스' 스틸컷.



<임태규>의 스틸컷은 '영화의 거리' 내 설치된 가로등 배너에서 거리 사진전 콘셉트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작품인 <겨울밤>과 <파도치는 땅>은 4.3항쟁을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한 초록작가와 민중의 생활사라는 주제로 사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모 작가가 각각 맡아 기대

를 높이고 있다.

한편 <노나> 카밀라 호세 도노스 감독, <굿 비즈니스> 이학준 감독의 사인이 담긴 공식 포스터는 영화제 기간 동안 구입 가능하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고시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공연자문위 위촉

최준호 한예종 교수

(재)전주문화재단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한옥마을 상설공연단공연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의 '공연자문위원 위촉'은 올해 5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전주마당극 '변사포 생일잔치'와 한옥마을 마당놀이 '놀부가 땀 시즌2'의 작품 완성도와 예술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 이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공연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최준호 교수는 공연예술 발전 및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으로서 공식적으로 약 400건의 문화예술분야 사업 추진을 총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최 교수는 올해 진행되는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의 자료 및 대본 검토, 연수 공간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계획이다. 첫 자문을 위해 지난 16일 전주를 방문했으며, 공연 전까지 두 차례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연수 공간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할 계획이다. 첫 자문을 위해 지난 16일 전주를 방문했으며, 공연 전까지 두 차례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 띄시다

어진박물관 '생생문화재사업' 유적지 답사·문화지킴이 아카데미 봉안축제 등으로 11월까지 운영



전주어진박물관이 올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펼친다.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띄시다'를 주제로 한 2018 생생문화재사업은 유적지 답사, 전주문화지킴이 아카데미, 태조어진 봉안축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운영된다.

현장답사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는 전북지역의 태조유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9일 '경기전과 오목대'를 시작으로 4월 28일 '진안 마이산과 몽곡적', 6월 23일 '남원 황산대첩과 피바위', 9월 22일 '순창 회문산 만일사와 고추장 설화', 10월 27일 '임실 성수산 상이암과 삼천동비' 등의 답사를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전주문화지킴이 아카데미 '전라도 천년의 역사문화'는 해설사 및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강좌. 올해는 전라도 천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오는 23일 '전라도 천년의 중심 전주', 30일 '방언으로 본 전라도 천년', 4월 6일 '전라도 천년의 정신', 4월 13일 '전라도 옛길'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실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조선

왕실의 뿌리를 찾아서'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1박2일로 진행된다. 5월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개국의 꿈이 담긴 남해 보리밭'을, 11월엔 북쪽으로 올라가 '태조의 또 다른 궁궐 회암사' 일원을 답사할 예정이다.

태조어진봉안축제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기전 일대에서 개최한다. 경기전 미션 릴레이를 비롯해 축제가장 동안 조정묘를 개방, 평소 들어가지 못하는 경내도 살펴 볼 수 있다.

어진박물관 김경옥 학예사는 "태조어진을 활용한 생생문화재사업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를 몸소 체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 번째 현장답사 '경기전과 오목대' 참여신청은 22일까지로 전주문화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어진박물관(063-231-0090) 및 전주역사박물관(063-231-6485). /정해은 기자

오래된 집에서 '책'을 즐겨볼까?



한옥마을 Plan C 두번째 프로젝트 '미미책방' 31일까지

한옥마을 은행로30에 위치한 Plan C. 이곳은 1923년에 지어진 오래된 집을 미디어아티스트 정문성이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변모시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Plan C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사진작가 장근범의 사진전 '33-새만금, 갯벌의 기억. 땅의 환상'으로 개관을 알린데 이어, 20일부터는 한국화가 고희영의 '미미책방'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미책방은 사진, 그림 및 미술관련 서적 등 고희영이 애장한 300여권의 책으로 꾸며진다. 이들 책 중 눈길을 끄는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은 강렬한 예술적 성향을 강하게 표현한 작가주의 만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문화 형식을 띤 문장으로 이뤄졌다.

전시 기간 중, 고희영 작가는 이들에 한 번씩 테마를 가진 그래픽 노블과 화집을 6권씩 소개할 계획이다. '어른의 성장통',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일본미술-우키요에', '애들은 가라-19금', '만화로 보는 역사', '글씨는 없다. 그림으로만 읽는다' 등 각 테마에 맞는 책들을 안내한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Plan C 유저 5명이 독서하기 좋은 의자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Plan C는 기존의 전시를 위한 공간에서 소품과 인테리어를 통해 편안함을 주는 책방으로 새롭게 완성됐다.

'미미책방'은 오는 31일까지 오후 6시~10시 진행(일요일·월요일 제외)된다. /정해은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